



<호날두>



맨유 오늘 밤 11시 잉글랜드 FA컵 결승 첼시



“후회없는 한판... 남은건 우승뿐”



<맨유 퍼거슨 감독>

“뉴캐슬에서 우리 팀의 역사를 보여주겠노라” (퍼거슨) “우리는 진정한 결승을 펼쳐보아라 한다” (무리뉴)

“저력 보여 주겠노라” “진정한 결승 펼쳐터”



<첼시 무리뉴 감독>

결을 진정한 결승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 막판 심판들이 맨유의 반칙에는 페널티킥을 불지 않는다는 말로 논란을 불러왔던 무리뉴는 끝까지 심판 판정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셉첸코>

AS로마 우승

16년만에 이탈리아컵 차지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리그(세리에A) AS로마가 16년 만에 이탈리아컵 정상에 올랐다. AS로마는 1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주세페 메차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터 밀란과 이탈리아컵 결승 2차전에서 1-2로 졌지만 지난 주 홈에서 가진 1차전에서 6-2로 크게 이겨 1.2차전 합계 전적 7-4로 1991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설기현 수술 받아도 프리시즌 복귀 가능”

레딩 스티브 코펠 감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딩의 스티브 코펠 감독이 발목 부상을 당한 설기현(28)에 대해 “수술을 받아도 프리시즌(6월28일)까지 복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코펠 감독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레딩의 지역신문 ‘C버크셔(Cberkshire.icnetwork.co.uk)와 인터뷰에서 “설기현의 발목상태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해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네덜란드(6월2일) 및 우즈베키스탄(7월2일) 평가전에는 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연이 18일 미국 뉴저지주 몬트클레어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사이베이스클래식 1라운드 13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정연 단독 선두 “이번엔 꼬~옥”

6언더...2위 박세리와 2타차

LPGA 사이베이스클래식 1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6년 동안 잡힐 듯 하다가 손에서 빠져나간 우승컵에 아쉬움을 삼켰던 이정연(28)이 또 한판 우승 기회를 만들었다. 이정연은 18일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여퍼 몬트클레어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사이베이스클래식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6개의 버디를 뽑아내는 깔끔한 경기를 펼쳐 단독 선두에 올랐다. 7일 전 미켈름울트라오픈 첫날에도 단독 선두에 나섰지만 3, 4라운드 부진으로 3위에 그쳤던 이정연은 “지난 번에는 좋은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4개 대회만 출전하면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을 얻게 되는 박세리(30·CJ)도 4언더파 68타를 때려 이정연

과 윌리엄스 수석 합격자 최혜정(23·카스코)도 박세리와 함께 공동2위 그룹에 합류,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른 제인 박(19)이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7위에 올랐고 김민경(19), 정일미(35.기아골프), 이미나(26. KTF), 양영아(29), 이지연(26), 박인비(19) 등이 2언더파 70타로 공동10위를 달렸다.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골프여왕’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4언더파 68타를 때려내며 이정연에 2타 뒤진 공동2위에 자리를 잡았고 긴오픈에서 오초아를 상대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던 장타자 브리타니 린시컴(미국)도 공동2위 그룹에 올랐다. 신인왕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젤라 박(19)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프리미어리그 4인방 성적표

설기현 103위 가장 좋아 영표 204위, 지성 221위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30·토트넘)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공식 통계사이트 ‘액팀 스태츠’ 선수 랭킹에서 각각 221위와 204위로 시즌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어리그 액팀 인덱스 선수랭킹을 산정하는 PA스포츠의 국내 파트너 아이웨이코프는 18일 “프리미어리그 한국인 4인방 중에서 설기현(레딩)이 가장 좋은 103위로 시즌을 마감했다”며 “이영표(204위)와 박지성(221위), 이동국(503위)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액팀 스태츠의 경우 선수랭킹 상위 100위까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해 그동안 한국 선수들의 최종 순위를 알 수 없었다.

통계사이트 ‘액팀 스태츠’ 산정

이동국은 ‘유효 샷 0’...503위

아이웨이코프에 따르면 설기현은 시즌 마지막 경기인 블랙번전에서 골을 넣는 활약을 펼쳐 30점을 추가해 103위에 올랐지만 시즌 중반 공백으로 100위 내 진입에 어렵게 실패했다.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을 보낸 설기현은 1천898분을 뛰며 한국인 선수 중 가장 많은 출전시간을 기록했으며 총 28번의 슈트(유효샷 16개) 가운데 4골을 기록했다. 또 이영표는 1천864분을 뛰면서 28번의 가로채기에 성공한 가운데 엘로카드는 한 번 밖에 받지 않아 모범적인 수비수로 눈길을 끌었다. 박지성의 경우 지난 시즌 두 차례나 수술을 받는 불운 속에서도 820분을 소화하면서 9번의 유효샷 가운데 5골을 성공시키는 뛰어난 골 결정력을 선보였다. 이밖에 데뷔전에서 골대를 맞추는 아쉬움 속에 ‘노골’로 첫 시즌을 마친 이동국은 311분을 뛰면서 8번의 슈팅(유효샷 0)을 날렸던 것으로 집계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